

북한 문학에서 전통과 계승의 문제*

— 1990년대 북한 문예이론과 문학사를 중심으로

The Issues of Tradition and Succession in North Korean Literature

임옥규(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차례

- | | |
|-----------------|--------------------------------|
| 1. 머리말 | 3. 민족문화예술유산의 주체적 계승과
정치 이념화 |
| 2. 문화예술 전통의 위계화 | 4. 맺음말 |

1. 머리말

북한 문화예술은 정치사회 체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당의 정책에 종속되어 변화되어 왔다. 북한 정치사회 체제의 특수성은 봉건성과 전통성의 문제와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1980년대 이후 북한은 계급에서 민족으로 강조점을 변경하고 '우리 식'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와 전통적 가치를 동원하기에 이르고 이와 연관하여 문화적 전통을 활용한 전통 담론을 끊임없이 생산해 냈으므로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하여 왔다.

1990년대 전후에는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7326).

1) 전미영, 『북한의 통치담론과 전통문화』, 『북한연구학회보』 7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3, 186-187쪽.

북한은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였고, 문학예술 부분에서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체제 유지를 위한 민족주의 강조, 민족유산에 대한 재평가와 계승을 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북한 문학예술에서는 수령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법론이 강조되는 한편, 문학사 해석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유연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북한 문학은 1990년대에 들어 자주시대를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전통과 문화유산 취급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이에 관한 것은 북한의 문예이론서와 문학사인 『주체문학론』(1992), 『조선문학사』(1994~2000)²⁾ 등에 이르러 구체화되고 있으며 『주체문학론』의 '제2장 유산과 전통'과 『조선문학사』 7~10권은 문학예술 전통에 대해 이전보다 폭넓은 해석을 하고 있다.

1990년대 대표적인 북한 문예이론서인 『주체문학론』은 주체의 문예관, 세계관과 창작방법,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단행본에 대한 해설은 이후 『조선문학』, 『문학신문』 등에 주요하게 소개되어 이 이론서 자체가 북한 문예이론의 지침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문학사는 역사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에 입각한 『조선문학통사』(1959),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이념과 주체문예이론에 기반을 둔 『조선문학사』(전5권, 1981),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념과 주체문학론에 기초한 『조선문학사』(전15권, 2000)로 변모되었으며³⁾ 본고의 연구대상인 『조선문학사』는 민족 유산과 전통에 대해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다.

2) 1990년대에 집대성된 북한의 문학사인 『조선문학사』는 총 15권으로 이 중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은 근대 이후에 해당되는 7, 8, 9, 10권이다.

류만, 『조선문학사』7(19세기 후반~1926년 문학),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류만, 『조선문학사』8(항일혁명문학), 사회과학출판사, 1992.

류만, 『조선문학사』9(192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기문학),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오정에 리용서, 『조선문학사』10(해방후편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3)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 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4쪽.

북한에서 전통 개념은 “지난 역사적 시기에 이루어져서 그 뒤로는 하나의 계승성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며 전해내려 오는 것”⁴⁾으로 정의되며 주로 민족적 전통이라는 용어 속에서 그 개념이 제시된다. 가장 최근의 사전인 『조선대백과사전』에서는 민족적 전통이라는 항목 속에서 “민족 발전의 역사적 과정에 형성 공공화되고 계승되어오는 전통, 매개 민족은 역사 발전의 매 단계마다 그 시기의 사회력사적 조건에 맞게 물질,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며 그것은 민족의 발전과 더불어 계승 발전됨으로써 민족적 전통을 이룬다”⁵⁾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통 개념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파생된 결과물’⁶⁾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E. J. 홉스봄에 의하면 전통이란 중세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사회가 형성되던 정치사회적 격변기에 기득권 세력이 통치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조작해 낸 것이다. 그는 『전통의 발명』에서 ‘전통의 창출(Inventing Tradition)’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⁷⁾ E. J. 홉스봄 식의 전통은 일종의 창안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⁸⁾ E. J. 홉스봄이 말했던 창조된 전통이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가장하는 현재의 통치방식이자 상징적인 관행들일 때, 이러한 지배의 전략은 북한이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을 상상하는 과정과 연관시킬 수 있다.⁹⁾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 중 와다 하루키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는 ‘북조선’의 전체상을 ‘유격대 국가’

4)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5)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2000, 85쪽.

6) 강만준 외, 『시사인물사전 7』, 인물과사상사, 2000, 267쪽.

7) E. J. 홉스봄T. 랑거 공편,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37-38쪽 참조.

8) 채상우, 『북한의 주체문예이론』,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145쪽.

9) 강진웅, 『북한의 항일무장투쟁 전통과 민족 만들기 - 민족주의와 권력, 담론, 주제』, 『한국사회학』 제 46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12, 26쪽 참조.

에서 '정규군 국가'로의 이행 변화로 파악하고 있는데¹⁰⁾ 논의에 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중심에서 생각해 볼 것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전통이다. 그는 1967년에 김일성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요구하면서 '혁명적 기풍'으로서 항일유격대 경험을 모범으로 치켜세웠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령의 절대화에 기여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이 시기에 북한의 혁명전통은 김일성의 전통뿐이라는 인식이 성립되고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은 북한에서 진행된 사회 변화의 주요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¹⁾

본고는 1990년대 북한 문예이론과 문학사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이와 둘러싼 북한문학 담론에서의 전통의 수용과 계승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990년대 북한 문학에서는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론과 수형형상문학론을 중심으로 한 문예창작방법론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조선문학사』(1991~)는 이전의 문학사에 비해 민족성을 강조하고 항일혁명문학의 우위성을 다루고 있어 『주체문학론』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북한 문학에서 전통과 계승 문제에 대한 검토는 북한 사회를 규정짓는 부분 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예술 전통의 위계화

북한은 1967년의 주체사상 확립 이후 1926년의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을 현대사의 기준점으로 삼았고 문학예술에서는 항일혁명문예 전통을 강조한다. 항일혁명 문학예술은 일제하 김일성 주도의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창작되었다고 하는 혁명문학으로, 북한은 이를 유일한 혁명적 문예

10)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돌베개, 2002, 참조.

11) 위의 책, 122-128쪽 참조.

전통으로 인정하면서 이 전통을 계승, 유지, 발전시키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혁명 전통을 교양하고 유일사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항일유격대원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문학에서 전통은 E.J.홉스봄이 말했던 창조된 전통과 가깝다. 북한문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통의 창출'이 전개되는지는 북한의 문학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북한 문학사는 『조선문학통사』(1959), 『조선문학사(1926-1945)』(1981), 『조선문학 개관Ⅱ』(1986), 『조선문학사』(1995) 등으로 변모되는데 여기에서 '혁명적 문화예술 전통'이 역사적으로 변용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문학사는 문예정책의 변모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문학사의 범주를 변형시킨다. 1970년대 이후 북한문학사에서는 카프 문학사의 전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항일혁명문학예술을 강조한다. 1990년대 『조선문학사』에서는 카프문학을 복원시키지만 항일혁명문학의 문학예술 전통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조선문학사』(1995)에서는 북한문학에서 전통의 중심이 되는 항일혁명문학의 유일한 전통을 계승한 주체문학으로서의 일방적 도정이¹²⁾ 나타나며 이와는 연관성은 『주체문학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체문학론』은 7장 32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2장은 유산과 전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¹³⁾ 이 이론서에서는 유산이란 민족문화유산이며 민족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는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연결되고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하는 방법은 통일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 이론서는 민족문화유산에는 혁명적 문화유산과 고전적 문화유산이 있으며 혁명적 문화예술전통도 민족문화유산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혁명적 문화유산을 과거의 민족문화유산과 뒤섞어놓거나 같은 위

12) 김성수, 『북한의 일제강점기 문학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89쪽.

13) 김정일, 「2. 유산과 전통」,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7-90쪽 참조.

치로 보아서도 안 된다고 한다.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은 민족문화 유산의 핵이며 중추라고 설명하면서 주체적인 민족문학예술의 원형으로 규정한다.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은 일제하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마련된 항일혁명문학예술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을 민족문화 유산의 최고 경지라고 보고 있다. 이는 주체시대에 계승할 혁명전통으로서 항일혁명문학예술을 최고의 위치로 설정하여 계승할 전통들을 위계질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문화유산에는 후대들이 계속 이어받아야 할것과 보존해두기만 할것이 있으며 없애버려야 할것도 있다. 여기서 이어받아야 할 유산이 바로 전통을 이룬다.

민족문화유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창조된 혁명적문화유산도 있고 그 이전시기 선조들이 이룩한 고전문화유산도 있다.

고전문화유산만 민족문화유산으로 보고 혁명적문화유산을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주체문학론』, 59쪽)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속에 포함시켜 본다고 하여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가치와 의의가 왜소화되는것은 아니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민족문화유산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그 전통의 역사적 지위와 가치를 전민족사적인 견지에서 옳게 평가할수 있으며 민족문화유산의 격도 높일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을 고전문화유산으로만 보아도 안되지만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과거의 민족문화유산과 뒤섞어놓거나 민족문화유산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를 다른 유산과 평균주의적으로 대하여서도 안된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민족문화유산의 핵이며 중추이다. (『주체문학론』, 61쪽)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그 가치와 생활력에서도 민족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룬다. 민족고전문화유산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것이기는 하지만 계급적제한성과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

받을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민족고전이라 하여도 오늘의 시대적 요구와 인민의 지향과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명실공히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주체적인 민족문학예술의 원형이며 그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만년초석이다.(『주체문학론』, 62-63쪽)

북한 문학예술에서는 김일성이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창시한 주체 문예 사상과 이론을 올바른 지도적 지침으로 보고 있으며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비롯한 항일혁명 문학예술작품을 옮긴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소설을 최상의 높이로 보고 있다. 『주체문학론』에서는 이러한 전통에 대한 계승의 문제를 논하는데, 그 이유는 1990년대 북한 사회가 혁명을 모르는 혁명의 3세대로 교체되는 실정과 관련된다.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혁명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은¹⁴⁾ 북한 문학예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한에서 유일한 혁명적 문예전통으로 인정받는 항일혁명문예 전통으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인 〈피바다〉, 〈꽃 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혁명가극, 영화, 장편소설 등의 장르 전이를 통해 끊임없이 현재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체문학론』에서는 혁명송가 『조선의 별』(1928), 혁명가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1947), 장편서사시 『백두산』(1947) 등에 나타난 혁명적 수령관을 기리고 있다.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항일혁명 문학예술의 업적을 기리고 있으며 항일혁명 투쟁을 담은 작품들에서 이미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방법을 창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의 별』은 ‘불멸의 혁명송가’로 불리면서 수령형상 창조 예술의 맹아적 형태이자 혁명송가라는 장르의 시원으로서 높이 평가된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내력과 북한 최

14) 위의 책, 65쪽.

고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가 주를 이룬다. 『백두산』은 김일성에 대한 흠모와 충성, 업적을 칭송하는 시로 일제 시대 조선인 민혁명군의 활약을 기리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은 수령이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창시한 전통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가장 영광스러운 문학예술전통으로 삼고 ‘피바다’ 식 가극, ‘성황당’ 식 연극의 탄생을 고귀한 전통 계승의 결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문학사에서 문화예술 전통의 위계화가 나타난다. 북한 문학사는 1950년대부터 출판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15권의 방대한 『조선문학사』가 발간되었다.¹⁵⁾ 『조선문학사』는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면서 혁명적 문학전통인 항일혁명문학을 주요하게 다룬다.

『조선문학사』 7권은 19세기 후반기에서 20세기 초(1926년)의 문학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제 식민지 통치하의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애국독립을 지향한 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항일혁명투사로서 김형직, 강반석의 문예활동에 대한 소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8권은 항일혁명문학을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김일성의 문예방침과 작품, 김일성 송가 등을 다루면서 영광스런 혁명전통으로 항일혁명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문학사』 7, 8, 9권의 체계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기 구분이다. 1926년을 기준으로 하여 문학사의 시기가 구분되는데, 이는 『주체문학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의 유일화 사상체계라는 당 정책이

15) 간략하게 연대별 제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조선문학사』(1~14세기), 『조선문학사』(15~19세기), 『조선문학사』(1900~), 『조선문학통사』 상(원시~19세기) / 『조선문학통사』 하(1900~전후 시기).

1960년대: 『조선문학사』 / 『조선문학사』1(기원전~14세기) 『조선문학사』2(15~19세기) 『조선문학사』3(20세기~) / 『조선문학사』(1~16, 기원전~여기에서 3~6, 11~16은 간행사실 미확인).

1970년대: 『조선문학사』(1~6, 원시~1970).

1980년대: 『조선문학사』(1~5, ~1980.9.), 『조선문학개관』1, 2(원시~ 1925, 1926~1984).

1990년대: 『조선고대중세문학사』, 『조선근대현대문학사』, 『조선문학사』(1~15, 고대~1980년대).

문학사관과 문학사론의 변화를 초래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¹⁶⁾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문학예술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주시대의 기본요구와 우리 당의 민족자주로선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그 계승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의 의도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주체문학론』, 59쪽)

북한에서 민족 자존심은 수령이 존재하는 민족이기에 생긴다고 하는 민족의 자존심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연관 속에서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을 민족문화유산의 최고점에 두어 민족문화를 수령형상문화예술의 하위 분야로 위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에 있어 시대 계급적 제한성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민족의 문제는 주체사상으로 귀결되며 민족문화유산의 범주에 대해서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가 작용한다. 북한이 유지 존속하고자 하는 항일혁명문화 전통은 북한의 혁명의 유산이며 반외세, 탈식민, 해방 투쟁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에 과도한 전통성을 부여하여 문화유산 계승의 편파성을 보인다.

북한문학은 2000년대 전후 수령영생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으로 변이된다.

선군의 기치 밑에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지난 고난의 행군은 항일의 혁명전통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일대 과시였다. 지난 90년대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항일의 나날 백두밀림에 차 넘치던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맞받아 뚫고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항일혁명선열들이 발휘하였던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난관극복정

16) 김성수, 『남북한 현대문학사 인식의 거리: 북한의 일제 강점기 문학사 재검토』,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 연구, 2010, 90쪽, 참조.

신,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식 사회주의 위력을 높이 떨칠 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었다.¹⁷⁾

시대정신의 반영으로서의 우리 문학이 선군정치시대를 형상하는것은 문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가장 위대한 선군정치시대를 반영한 우리 문학은 선군혁명문학이다. 우리가 말하는 선군혁명문학은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새로운 발전이다. 인류문학사는 선행시대의 낡은 문학과 새 시대의 진보적문학이 교체되는 력사적인 전환기마다에서 새로운 사조를 반영한 문학운동이 일어났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선군혁명문학은 새로운 사조의 반영이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되고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자라찬 로정을 걸어 온 주체사실주의가 낳은 새형의 문학이다.

선군혁명문학이 새형의 문학으로 태동하여 형상을 펼친것은 20세기 마지막 년대의 6년이다.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인류력사우에 새로운 한 시대를 창조해 놓으신 걸출한 위인,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형상을 창조하는데로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하여 21세기의 태양을 안아 올린 김정일강성대국의 위력을 세기의 창공높이 받들어 빛내야 한다.¹⁸⁾

2000년대에는 주체사실주의 새 형의 문학이라고 주장하는 선군혁명문학을 제시하고 항일혁명 전통의 혁명적 정신을 강조하는 문학 창작을 기리고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받들고, 김정일이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나가는 김일성 민족’의 새로운 태양이라고 규정하여¹⁹⁾ 문학의 역할이 김정일 강성대국의 위력을 펼치는 데 주요한 목표가 있음을 강조한다.

17) 『로동신문』, 2007년 9월 19일자, 1면.

18) 최길상, 『새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2000년 제1호, 5-6쪽.

19) 배성인, 『김정일 시대 북한문학의 특징』, 『통일문제연구』43, 평화문제연구소, 2005, 289쪽.

3. 민족문화예술유산의 주체적 계승과 정치 이념화

북한문학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이원화하여 항일혁명문학을 최상의 위치에 놓는 한편으로 고전문화예술유산의 계승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주체문학론』은 자주 시대를 이루기 위해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계승과 혁신에 관하여 제기하였다. 여기에서 과거 문화유산은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과는 다른 범주를 말한다. 과거 문화유산의 범주에는 실학과 문학, 민요, 시조 형식, 신경향파 문학, 카프 문학 등이 포함된다.

저자 김정일은 민족고전도 오늘의 시대적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또한 이 이론서에서는 지난날의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하기 위해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견지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민족허무주의자와 사대주의자를 경계하고 있다. 현대성의 원칙이란 자주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미감을 유일한 척도로 하여 낡은 문학예술형태를 개조 변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반침략 애국주의 정신과 조선민족제일주의²⁰⁾ 정신 강조로 이어진다. 이 이론서에서는 자주시대의 문학은 주체혁명을 수행하는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강화하여야 하며, 민족 자주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인민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에 대한 신심을 잃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세우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제 정신

20) '조선민족제일주의'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5년 무렵이며 1989년에는 『우리민족제일주의론』(고영환평양출판사)이라는 단행본이 출판되었다. 1986년에는 김정일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자기 문제에 대하여』에서 이 용어가 제시되었다.

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갈수 없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없으며 주체적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없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사상과 우수한 전통,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존엄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다시말하여 우리 민족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있는 민족이며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영광스런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는 민족이며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라는 것을 생동하게 밝혀내야 한다. 특히 문학작품에서 우리 수령이 제일이며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이 격조높이 울려나와야 한다. (『주체문학론』, 17~18쪽)

1990년대 북한 문예이론의 근간이 되는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소개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기보다 수령이 존재하는 조선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 문학예술에서 민족문화 전통의 확립과 재창조 작업은 수령의 신성화 작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항일혁명문화예술 전통을 중심으로 한 민족문화유산의 계승 논의가 민족 자주 노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고 민족적 전통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성은 민족이 계승하는 전통에 체현되며 그에 기초하여 높이 발양됩니다. 따라서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민족성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²¹⁾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입니다. ... 수령

21)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문헌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267쪽.

님이시아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입니다. 지금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²²⁾

『주체문학론』은 민족문화예술유산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대의 일환으로 사실주의적 경향의 유무에 대해서도 논한다. 이 이론서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카프문학을 제시하면서 이를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범주로만 규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전제한다. 카프문학의 비판적 사실주의적 경향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경향에 주목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카프문학이 선행한 사실주의 문학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지향에 맞는 우수한 형식을 창조하였다고 평가한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1930년대 이후에 창작된 카프문학이 인민의 공감과 성원을 반영하였기에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항일혁명 투쟁의 영향 밑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문학을 정치 이념화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은 『주체문학론』에서 사실주의적 경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유산을 정리한 내용이다.

북한이 민족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는 북한 문학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 『조선문학사』는 『주체문학론』에서 제기되었던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견지하여 과거 민족문화 예술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항일혁명문학의 전통과 구분되는 민족문화유산으로 카프문학,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일제 강점기 진보적 작품을 다루고 있다.

북한의 이전 문학사와 비교해 볼 때, 1990년대 『조선문학사』가 이전의 오류를 수정, 보완한 점에 주목해 보는 평가가 있다.²³⁾ 여기에서는 전 15권 중 7, 9권이 20년간 외면되었던 프로문학과 민족주의문학 일부를 복권

22)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 선집』 13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427-428쪽.

23) 김성수, 『남북한 현대문학사 인식의 거리: 북한의 일제 강점기 문학사 재검토』, 앞의 책, 74쪽.

〈표 1〉 『주체문학론』에서의 민족문화유산 관련 내용

구성		대상작품	평가 및 지침 내용
장	절		
2. 유산과 전통	3) 민족문화예술 유산을 주체적 립장에서 바로 평가하여야 한다	카프 문학(조명희, 송영, 리기영, 한설야, 류 완희, 김창술, 박세영, 박팔양 등의 1927년 이 후 작품들) 소설 『고향』, 『황혼』, 『락동강』, 희곡 〈일체 면 회를 거절하라〉 시 『민중의 행렬』, 『앗을대로 앓으라』, 『산제비』, 『진달래』 강경애 〈인간문제〉	비판적 사실주의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1927년 이후 작품)
		신경향파 문학 최서해, 리상화, 리익상의 초기 작품	비판적 사실주의에 서 사회적 사실주 의로 넘어가게 됨
		20세기 초 리인직 중편소설 〈혈의 누〉, 〈귀의 성〉, 〈치악산〉	현대적인 신소설 창작
		리광수의 소설(『개척자』 등 초기 소설과 『혁명가의 아내』)	사회 불만 표현
		최남선의 시	민족시기 발전에 기여한 새로운 형 식의 시 창작
		일제 시기 진보적 작품-신채호, 한용운, 김억, 김소월, 정지용/동반자 소설/심훈, 리효석, 근 대아동문학 작가 방정환/문호월(〈노들강변〉 등의 민요풍 노래), 라운규(영화 〈아리랑〉)	문학사와 예술사 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루어야 함
		계몽기문학, 근대문학 실학과 문학/최치원, 리규보, 김시습, 정철, 허균, 김만중 등/〈춘향전〉 〈홍부전〉 〈심청전〉/ 민요 〈신고산타령〉/시조 형식	반봉건적, 반침략 적 성격이 강한 애국적인 문학 실학과 문학 외면 은 민족허무주의 표현

출처: 임옥규, 『북한 문예창작방법론의 정전, 『주체문학론』』,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주체의 환영』,
경진, 2011, 57쪽 표 수정.

한 것이 평가할 만하다고 진단한다. 9권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엽 문학(1편)과 1930년대 중엽부터 1940년대 전반의 문학(2편)을 다루
고 있다. 9권에서는 진보적 소설문학 발전의 면모로 신경향파 소설의 빈

공과 반항을 평가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어민의 투쟁을 형상화한 소설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산대중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반영한 문학과 대중적 투쟁, 애국 지향을 반영하고 착취 사회를 폭로한 작품들을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문학으로는 항일무장투쟁을 지지하는 문학과 역사 주제를 형상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문학사』 7, 8, 9권의 중심은 항일혁명문학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문학사와 달리 민족성과 인민성, 애국주의를 반영하는 작품들이 진보적 문학이라는 평가 속에 새로 소개되고 있다. 7권에서는 김억, 주요한, 한용운, 김소월, 정지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작가들은 『주체문학론』에서도 일제시대 진보적 시인으로 소개된 바 있다. 9권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카프 등 비관적 사실주의 계열과 진보적 민족주의 문학도 다루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북한 문단에서 외면되었던 한설야와 박팔양이 문학적으로 복권되었다. 이 문학사에는 리찬에 대한 새로운 평가²⁴⁾가 있으며 한용운, 양주동, 박로아, 김달진, 심훈, 정지용, 백석, 김태오, 리용악, 윤동주 등의 시 작품도 주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락동강』에 대해서는 해방 전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첫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1930년대 대표적인 소설로 이기영의 『고향』, 강경애의 『인간문제』, 한설야의 『황혼』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역사소설, 풍자소설 등을 다루고 있다. 『조선문학사』 9권은 8권이 항일혁명문학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좀더 유연하게 문학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주체문학론』과 『조선문학사』는 공통적으로 민족문화예술의 주체적 계승을 논하고 있다. 이 둘은 사대주의와 복고주의를 극복하고 반일외식과 계급의식이 반영된 민족문화예술을 유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주체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 기초적으로 작용

24) 10권에서는 리찬의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단계를 연 혁명송가로 평가한다. 오정에 리용서, 『조선문학사』 10, 사회과학출판사, 1994, 59~60쪽.

하고 있다.

북한 문학에서 민족의 개념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 우리 인민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²⁵⁾인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는 수령, 당, 대중의 호상관계'²⁶⁾를 그리는 '주체시대의 문학 강령'의 대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²⁷⁾ 또한 근대 국가 형성과 '주체'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북한을 하나의 '민족주의 국가'로²⁸⁾ 부르기도 한다.

1990년대에 강조된 민족문화를 기반으로 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 고유의 체제와 독자적 사회주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되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을 위시로 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경험하고 자연재해, 식량난 등으로 인해 내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사상과 이념의 구축이 필요하였다.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은 이와 같은 사회 역사적 배경과 문예학적 관점을 문학에 반영하여 이론화한 것이다. 이 이론서에서 제기된 민족문화 전통에 대한 유연성은 북한문학에 대한 새로운 흐름으로 보였으나 그 외연이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조선문학사』의 서술 시각의 핵심은 북한식 민족주의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며 자기 중심적이며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⁹⁾ 『조선문학사』 1권에 따르면 조선문학은 고유한 민족적 형식으로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반영하면서 줄기차게 발전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문학과 민족해방, 계급해방

25)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5쪽.

26) 김일성,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선집』 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44쪽.

27) 유임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주체사실주의'로의 이행』,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210쪽.

28) 강진웅, 앞의 책, 25쪽.

29) 김현양, 『민족주의 담론과 '주체'의 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374쪽.

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문학인 것이다.³⁰⁾ 『주체문학론』에서의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유연성과 『조선문학사』에서의 문학사적 포용의 근간에는 반침략 애국주의, 인민성과 민족성이 중심이 되고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1990년대 북한 문학예술 이론서와 문학사를 통해 북한 문학에서의 전통과 계승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북한 문예이론과 문학사의 기술 원칙은 '민족성'과 '주체성'이었으며 민족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계승하는 입장에서 항일혁명문예에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주체문학론』과 『조선문학사』에 따르면 북한이 자주시대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전통과 문화유산에 관심을 두었으며 혁명적 문화예술을 우위에 두고 민족문화유산의 전통 확립과 계승의 문제를 논하고 있어 북한 문학은 문화예술을 그 본령적 역할에서보다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문학은 유산과 전통을 논하면서 민족문화유산을 혁명적 문화유산과 과거 민족문화유산으로 구분하고 항일혁명문학을 민족문화유산의 최고 경지로 취급한다. 동시대에 발생한 항일혁명문학과 카프문학을 혁명적 문화유산과 과거 민족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이를 위계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족문화유산의 중추이자 핵으로서 항일혁명문학을 강조하는 이면에 과거 민족문화유산의 범위를 실학과 문학 등으로까지 소급하여 이 전보다 폭넓고 유연한 문학사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민족문화유산은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항일혁명문예의

30)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1쪽

경우 기존의 문학 장르와 양식을 다양하게 파생시켜 북한 특유의 문예 양식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민족문화유산 전통 계승의 방법으로는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이 제시되며 자주성과 주체성, 민족성을 강조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 강조되었다. 여기에서 조선민족은 김일성 민족에 다름 아니며 이후 수령영생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으로 계승되어 문학의 역할이 시대의 위기극복의 강령과 지침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 북한 문학은 고난의 행군 등의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구호와 지침이 중심이 되는 문예이론으로 경직되었다. 1990년대 북한 문학에서 대두되었던 전통과 계승의 문제는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이념에서 다소 벗어나 문학사의 범위를 넓히고 사실주의를 계승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 살펴본 민족문화유산과 혁명적 문화유산과의 관계를 통해 1990년대 북한문학은 민족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여 북한의 통치담론을 공고히 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김일성, 『김일성 선집』 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류만, 『조선문학사』 7(19세기 후반~1926년 문학),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 류만, 『조선문학사』 8(항일혁명문학),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류만, 『조선문학사』 9(192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기문학),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오정애·리용서, 『조선문학사』 10(해방후편 평화적민주건설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2000.
-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문헌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 김정일, 『김정일 선집』 13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8.
- 정홍교, 『조선문학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91.

논문

- 강만준 외, 『시사인물사전 7』, 인물과사상사, 2000.
- 강진웅, 『북한의 항일무장투쟁 전통과 민족 만들기-민족주의와 권력, 담론, 주체』, 『한국사회학』 제46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12.
- 김성수, 『남북한 현대문학사 인식의 거리: 북한의 일제 강점기 문학사 재검토』,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 연구, 2010.
- _____, 『북한의 일제강점기 문학사 서술』,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 김현양, 『민족주의 담론과 '주체'의 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 동국대한국문학연구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
- 박상천, 『북한 문화예술에서 '민족문화'와 '민족적 형식'의 문제』, 『북한연구학회보』 제6

- 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02.
- 배성인, 「김정일 시대 북한문학의 특징」, 『통일문제연구』 43, 평화문제연구소, 2005.
- 와다 하루키,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돌베개, 2002.
- 유임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주체사실주의』로의 이행」,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 채상우, 「북한의 문예이론에 대하여-인간에 대한 신뢰와 민족국가 기획으로서의 문학」, 『한국어문학연구』 제41집, 한국어문학연구회, 2003.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주체의 환영』, 경진, 2011.
- E. J. 홉스봄 T. 랑거 공편, 최석영 역,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 전미영, 「북한의 통치담론과 전통문화」, 『북한연구학회보』 7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3.
- 민족문학사연구소 남북한 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소명출판, 2014.
- 정성무, 『시대와 문학예술 형태』,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최길상, 「새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2000년 제1호.

Abstract

The Issues of Tradition and Succession
in North Korean Literature

Lim, Ok-Kyu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1990s focused on issues of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s inherited. What about this is implemented in *The Theory of Juche Literature* (1992) and *The History of Chosun Literature* (1994-2000).

Literary theory and literary history of the 1990s in North Korea took a narrative principle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ity’. The North Korean literature by this principle they give legitimacy to the anti-Japanese revolutionary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independent and inherited the ethnic culture and arts.

North Korean literature was while discussing the heritage and traditions distinguish the revolutionary heritage and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 the past, national cultural heritage. The North Korean literature deals with the anti-Japanese revolutionary literature at the highest state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Meanwhile, as a matter of tradition and inheritance that was emerging from the literature of the 1990s, North Korea has the significance of realism inherited from one to broaden the range of literature out of the rigid ideological points.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9호

주제어: 북한문학(North Korea literature), 전통(tradition), 계승(succession),
『주체문학론』(*The Theory of Juche Literature*), 조선문학사(*The History of Chosun Literature*)

논문 접수일 2015. 07. 07. | 논문 심사일 2015. 07. 21. | 게재 확정일 2015. 08. 11.